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30일(한국시각)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휠체어 마라톤의 김규대를 기수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 패럴림픽 11일 열전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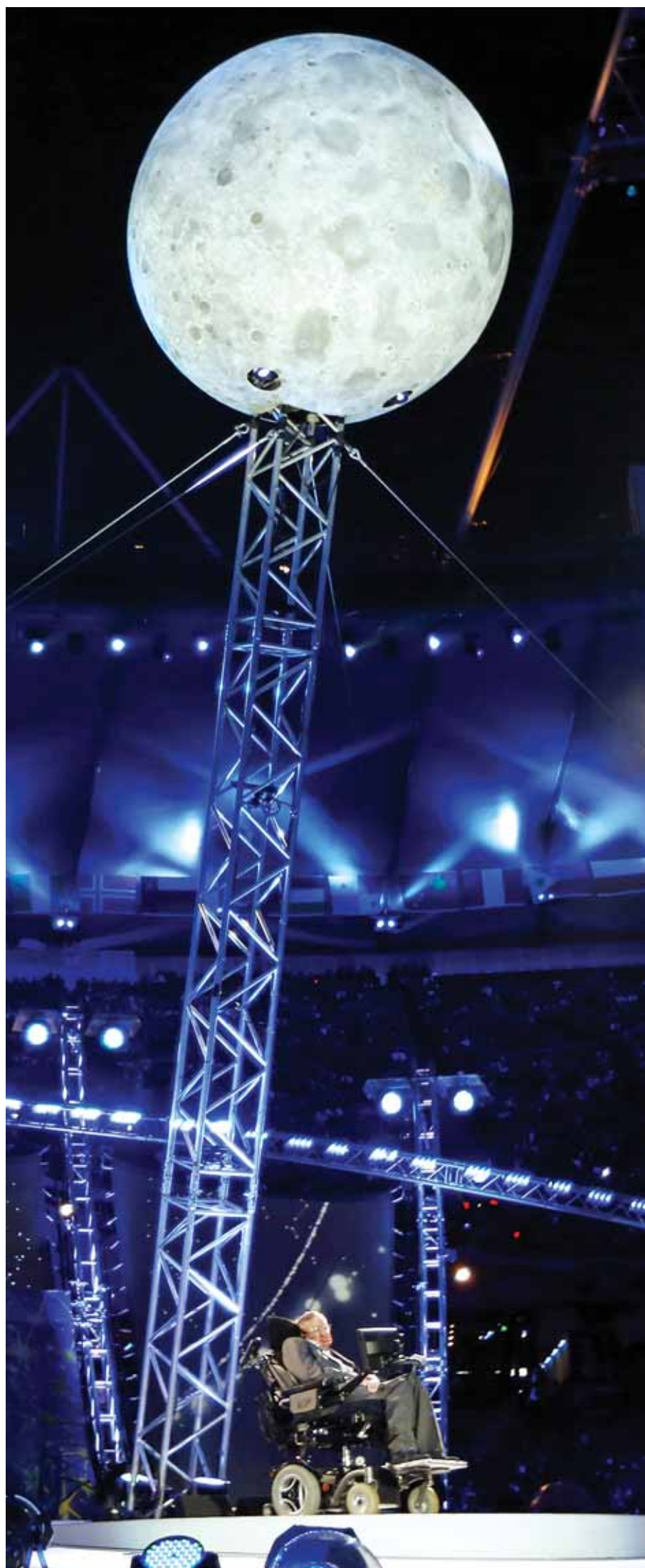
금 503개 166국 7천명 경쟁 ... 한국 13위 목표
개막식 호킹 박사 등장 ... 천체 조형물 '빅뱅'

전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최대 축제인 2012 런던패럴림픽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런던패럴림픽조직위원회(LOCOG)는 30일(한국시각) 오전 5시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1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패럴림픽 사상 가장 많은 166개 나라에서 7000여 명의 선수단은 '역동하는 혼(Spirit in Moti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개 종목 503개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개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어둠속에서 영국의 천체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등장하면서 개막식이 화려하게 시작됐다. 공중에 떠있던 천체 조형물이 스타디움 한가운데 거대한 우산 조형물 안으로 빨려들면서 '빅뱅'이 일어났다. 빅뱅은 우주 탄생의 신비를 설명하는 호

킹 박사의 이론이다. 이어 이날 개막식의 주인공 '미란다'가 거대 우산 안에서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호킹 박사는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필립 크레이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과 영국 여왕의 입장에 이어 선수단 입장이 시작됐다. 선수들은 비장애인 올림픽의 개막식과 달리 개막공연 이전에 입장을 마쳐 함께 공연을 즐겼다. 각 나라의 선수단 기수와 함께 선수단 맨 앞에 선 여성 자원봉사자는 해당 국가의 국기 색깔과 같은 드레스를 맞춰 입어 눈길을 끌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항상 첫번째로 입장하는 것과는 달리 패럴림픽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가장 빠른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이 첫번째로 입장했다.

아프가니스탄은 1명의 선수와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미니' 선수단을 파견했다. 사상 처음으로 패럴림픽 무대를 밟은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체코(Czech Republic)에 이어 40번째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북한은 수영에 출전하는 선수 1명뿐이지만 탁구 영웅 리분희를 비롯한 선수단 5명이 스타디움에서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카타르(Qatar)에 이어 123번째로 입장했다. 김규대(휠체어육상)가 기수로 나선 한국은 이번 대회에 88명의 선수를 파견해 금메달 11개 이상으로 종합 13위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선수 입장을 마친 뒤 엘리자베스 여왕이 패럴림픽 개막을 선언했다. 이어진 공연에서 '호기심에 가득한' 여주인공 미란다는 책, 뉴턴의 사과, 태양열 등 인류의 발전을 앞당긴 계기를 만나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꾸몄다. 이윽고 경기장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붉은색 조형물을 든 연기자들이 '입자'로 분해 경기장 안쪽으로 몰려들었다. /연합뉴스

호킹 박사는 "최근 희스 입자의 발견은 인간 노력의 성과"라며 "이는 우리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다. 패럴림픽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발을 들었던 주인공 미란다는 총돌하는 입자 사이에서 떠올라 장애인의 사회 진출 한계를 의미하는 '유리 천장'을 깨뜨렸다. 개막 공연이 절정에 이르자 전날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스토크맨더빌에서 출발한 성화가 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스타디움 옆 철골 조형물 오버트 타워 꼭대기 100m 상공에서 와이어를 타고 스타디움에 도착한 성화 봉송 주자 조 타운센트는 2012 패럴림픽 5번째 축구에 출전하는 데이비드 클라크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성화를 받아 가이드 러너와 함께 성화대 앞까지 달린 클라크는 영국 최초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마거릿 모음에게 불꽃을 건넸다. 모음이 불꽃을 피워 올린 성화는 대회기간 내내 스타디움을 비춘다. 여러 개의 꽃잎이 하나로 뭉친 성화에는 166개 참가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호킹 박사 "고개들어 별을 보라"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첫 축하공연에 등장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음성 인식기를 통해 "고개를 들어 별들을 보라. 당신의 발만 쳐다보지 말고"라며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라. 호기심을 가져라"고 연설했다. /연합뉴스

F1 벨기에 그랑프리 '출발'

라이코넨·알론소 우승 경쟁

2012 F1 국제자동차경주 12차전인 벨기에 대회가 31일~9월 2일까지 스페-프랑코샹 서킷에서 열린다. 올 하반기 첫 대회인 벨기에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경쟁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라리의 알론소가 다시 한 번 우승을 가져간다면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벨기에대회에서는 키미 라이코넨(로터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라이코넨은 최근 일곱 차례의 벨기에대회에서 모두 4번의 우승을 가져가면서 스페-프랑코샹 경주장의 강자임을 보여줬다. 올 하반기 첫 대회인 벨기에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경쟁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라리의 알론소가 다시 한 번 우승을 가져간다면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벨기에대회에서는 키미 라이코넨(로터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라이코넨은 최근 일곱 차례의 벨기에대회에서 모두 4번의 우승을 가져가면서 스페-프랑코샹 경주장의 강자임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선두 탈환을 노리는 레드불의 세바스찬 베텔도 점수를 노리고 있다.



샤라포바 US오픈 승승장구 미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국립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투어(WTA) US오픈 단식 2회전에서 로우르데스 도밍게스 리노(스페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PL 이적료 8조원 넘었다

도입 10년...첼시 1조2천억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트랜스퍼 윈도'(이적시장)를 도입한지 10년 만에 누적 이적료가 44억 파운드(약 8조원)를 넘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 스포츠비즈니스 그룹은 30일(한국시각)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총 40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썼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는 2003년 1월부터 '트랜스퍼 윈도'를 도입해 1년에 두 차례(겨울·여름)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사고파는 이적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이적료를 쏟아부은 구단은 첼시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이적료를 쏟아부은 구단은 첼시다. 러시아의 석유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주인 첼시는 지난 10년간 이적료로 총 6억7300만 파운드(약 1조2000억원)를 지급했다. 첼시의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거부인 셰이크 만수르가 구단주를 맡은 맨체스터 시티가 5억7200만 파운드(약 1조272억원)를 이적료로 써 2위에 올랐다. 이밖에 리버풀(4억1400만 파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3억5200만 파운드), 토트넘(3억5000만 파운드), 아스널(2억1400만 파운드)의 순으로 조사됐다. 첼시는 '큰손'답게 31일 자정(현지시간) 마감되는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예상 아자르(3200만 파운드), 오스카(2500만 파운드), 빅토르 모지스(900만 파운드) 등 스타급 선수를 대거 영입해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첼시는 '큰손'답게 31일 자정(현지시간) 마감되는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예상 아자르(3200만 파운드), 오스카(2500만 파운드), 빅토르 모지스(900만 파운드) 등 스타급 선수를 대거 영입해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 역대 이적료 지급 순위(2003년 1월 이후)> 1. 첼시(6억7300만 파운드) 2. 맨체스터 시티(5억7200만 파운드) 3. 리버풀(4억1400만 파운드) 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3억5200만 파운드) 5. 토트넘(3억5000만 파운드) 6. 아스널(2억1400만 파운드) /연합뉴스